

“경희미래 낙관적 전망”

창간·개교기념 특집 설문조사

국제화·개방화 시대 대응방안 모색

우리신문에서는 ‘창간 39주년 및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사상·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희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조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응답자가 49.6%로 나타났다.

기초교육, 복수전공제, 교수평가제 등의 도입으로 학교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경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1일 앙케트 조사를 받은 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설문조사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사상·인식’에서는 응답자의 47.9%가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R 등 정부정책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변화상과 관련, 82.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반면 이에 관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8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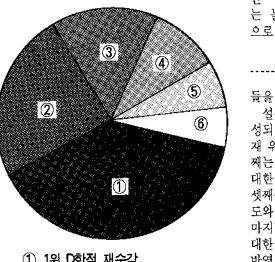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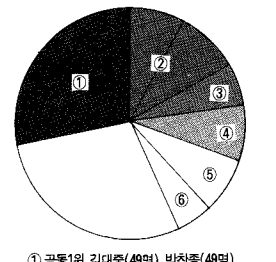
교육입국과 문화세계의 창조, 진리추구와 세계평화창안의 위대한 이상을 갖고 설립된 경희대학은 이제 창설의 45주년을 맞이하였다. 또한 아홉은 우리 모두의 이상을 붙들고 언로를 떠돌고, 그 외의 결과적 실현에 선듯 열의를 감당하며 창간된 ‘대학주보’도 여든 39주년에 이르렀다.

둘이 보진대 대학의 설립과 ‘대학주보’가 창간된 역사적 시점은 조국의 전황의 패색에서 온 민족이 애통한 좌절과 위기에 몰려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조국과 인류전체의 절연한 외로움의 어둠을 걷고, 민족사적 광명을 비추며, 세계평화창안의 위대한 이상을 품고, 우리 경희인은 이념을 해냈다.

교육입국과 문화세계의 창조, 진리추구와 세계평화창안의 위대한 이상을 품고, 우리 경희인은 이념을 해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조국과 인류전체의 절연한 외로움의 어둠을 걷고, 민족사적 광명을 비추며, 세계평화창안의 위대한 이상을 품고, 우리 경희인은 이념을 해냈다.

◇ 가장 신뢰하는 우리나라 정치인 ◇

◇ 개혁발진 개혁정책 관심도 ◇



(관려자 13명)

□ 설문조사 I □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앙케트 조사를 통해 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 통계자료가 가능한 4백15부 분석자료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보면 1학년(21.2%), 2학년(32.3%), 3학년(24.6%), 4학년(21.2%)이며, 남학생이(70.5%), 여학생이(29.5%)를 차지했다.

창간기념 특집으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물론 현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치·사회적 현실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보았다. 만족도와 불만족을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1. 교육개혁: 49.6%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2. 복수전공제: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3. 교수평가제: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4. 학사제도: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5. 학사제도: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6. 학사제도: 46.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사제도의 안정성도 조사했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49.6%로 나타났다.